

초 리 하
무우 총리. 총무
제 1752 비 22
표 지
(82.3.9)

(70-201; . . . 1973. 12. 29.

제 목 : 새해를 맞이하는 공무원의 자세확립에 관한 지시

2. 이와같은 관점에서 각 기관의 장은 신년 시무식에서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국영기업체 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키고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짐하기 바랍니다.

다 .

1. 국제적으로는 열강사이의 세력균형을 통한 화해
평화공존의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면서도 국지전의 위험은 상존하고,

각국의 실리추구의 소용돌이 속에 치열한 국제적 생존경쟁의
물결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으며, 이런 주변 정세속에 아직도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어있고 전쟁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수호하고, 항구적이며 안정된
번영의 달성을 향해 나가야 하는 바, 공무원들은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 위치를 직시하여 어떻게 과감히 대처해 나갈것인가를
항상 명심하고 국사에 임할것.

2. 공무원은 우리가 지난날 주변정세의 격동기에
처하여 상황판단의 착오와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므로써 돌이킬수 없는 민족수난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고훈삼아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정.
번영. 통일을 기약하는 10월 유신 이념" 구현의 첨병이 되어
국민 총화 체제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도록 할것.

3. 유류파동, 자연경쟁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의 변동은 우리 국민생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서
세계속의 한국을 실감케하고 있는 바, 공무원들은 이러한 제반
여건 변화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는-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할것.

4. 공무원은 직위의 상하 직무의 소관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항상 정부를 대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도록 언행 일치하여야 함은 물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것.

5. 공무원은 언제나 국민속에서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있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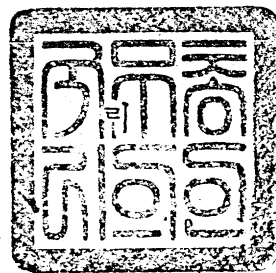
6. 공무원은 일시적 전시효과만을 거두는 일이나, 상사의 재가로서 일이 성공되고 자기책임을 다한듯이 생각하는 안이한 자세를 과감히 박차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PR 할뿐 아니라 사업 수행과정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여 물의야기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국민의 협조를 얻을수 있는 네실과 창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할것.

7.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소관 사무는 항상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자기 단 하나만이 그 사업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소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할것.

8. 공무원은 자기 주변의 모든 행정 부조리와 비능률을
과감히 척결하고 부정을 멀리하는 서정쇄신의 실천자가 될것.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 (10 - 41. 43. 44)

나 (1 - 11)